

# 나주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본격화

### 오늘 유치추진위 발족...광주·해남·영암 등과 4파전 반남마한유적보존회 동참·범시민 서명운동 등 예정

나주시가 4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유치 도전을 본격화한다.

나주가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충청과 호남 마한권역에서 가장 많은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권역에서만 센터 유치를 놓고 나주와 해남, 영암, 광주 등 4파전이 예상된다.

나주시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결의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유치위원회에는 지자체 관계자와 학계, 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시민 9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센터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1977년 반남면민을 중심으로 결성한 반남마한유적보존회도 동참한다.

나주는 영산강 유역 고대 마한의 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남 고분군(국가사적 제513호), 북악리 고분군(국가사적 제404호)이 있고, 국보 제295호 금동관, 보물 제2125호 금동신발과 같은 마한 관련 유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됐다.

지난 2021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나주에서 출토된 영산강 유역 마한역사문화유적은 403개로, 전국 12개 지자체 2657개 중 가장

많다.

국립나주박물관·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등 핵심 시설과 연구기관도 있다.

나주시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 마한역사 교과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대표 축제인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총 6회), 마한 관련 학술대회(총 14회) 등을 열었다.

시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정비의 핵심 기관이 될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 신청서를 지난달 17일 전남도에 제출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은 문화재청이 주관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에 건립되는 센터는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찬란했던 고대 문화를 꽃피운 마한사를 복원하고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를 빼놓고는 영산강 유역 마한 역사는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나주는 역사성과 상징성에 있어 대표적인 마한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나주 유치는 마한 역사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립하고자 노력해왔던 나주시민들의 노력과 성과에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시가 4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를 위한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국가사적 제513호로 등재된 나주 반남 고분군 전경. (나주시 제공)

## 화순군, 삼천지구 70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2029년 '스마트 신도시' 조성 앞두고 부동산 투기 등 차단

화순군이 오는 2029년까지 5000세대 규모 '스마트 신도시'를 조성할 삼천지구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규모는 약 70만㎡(21만평)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년간 유지한다.

화순군은 화순읍 삼천리와 강정리 일원에서 추진하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구역에서 5000세대 규모 주거·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증,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9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전남개발공사와 지난해 8월24일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근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30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간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하거나 부정행위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군, 경로당 개선에 15억 투입

### 개보수 지원금·부식비 증액 등 5개 분야 지원사업

인구 3명 중 1명(32.3%)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장성군이 15억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경로당 지원에 나선다.

장성군은 지난 31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가 최종 의결함에 따라 14억9400만원을 들여 5개 분야 경로당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경로당 지원 현실화 사업은 연초 장성군이 벌인 '군민과의 대화'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경로당 개·보수 지원금 액 한도를 기존 1곳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반찬 등을 사는 데 쓰는 부식비 지원액은 지원 기준 회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세분화했다. 회원 60명이 등록된 경로당이 지원받는 부식비는 월 최대 36만원으로, 기존 27만원보다 33.3% 증액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리가 불편한 경로당 회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입식 탁자 도입을 시범적으로 펼친다.

경로당 67곳에는 온돌장판을 지급하고, 200만원 한도 안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 교



김한중(맨 오른쪽) 장성군수가 지역 한 경로당을 찾아 '군민과의 대화'를 하며 경로당 개선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장성군 제공>

체 지원비를 준다.

경로당에서 친환경 양곡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정수기 설치,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 내용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장성군은 지역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전기 안전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주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즉시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모든 군민이 행복한 새로운 장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강진 전라병영성+벚꽃 축제 통했다...역대 최다 인파

### 병영성축제 4만 등 9만명 방문 농특산물 등 판매 1억원 육박

지난달 말부터 2일까지 열린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와 '제6회 강진 금곡사 벚꽃 삼십리길 축제'가 역대 최다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2018년 제21회 전라병영성축제에 1만9866명, 22회 축제에는 3만600명이 방문했다. 올해는 4만 1000여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금곡사 벚꽃 축제는 5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두 축제에는 3일 간 모두 9만여명이 방문해 조선허·농특산물 등 9100여만원의 판매액을 올렸다.

병영성축제 개막일인 지난 1일에는 올해 처음 개최 시기를 변경한 강진전라병영성축제의 일 평균 방문객 1만5000여명보다 2600여명 더 많은 1만7600여명이 방문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지난 2일까지 열린 '제26회 전라병영성축제'에 역대 최다 방문객이 찾았다. 병영성축제 퍼레이드 모습. <강진군 제공>

이처럼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요인으로 기존에 별개로 추진한 2개 봄 축제를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동시에 연동 개최한 점을 강진군은 꼽았다.

병영성축제의 즐길거리와 벚꽃축제의 볼거리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또 강진군만이 품고 있는 역사 문화적 자원에 타 지자체에서는 쉽게 즐길 수 없는 아식 콘텐츠가 더

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꽃으로 물든 강진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 찾아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4월 월출산 봄소풍 축제, 6월 수곡 축제 등 '사시사절 축제'가 끝나지 않는 관광 강진'으로 군민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빛나는 6070'

### 강진군, 6070대학 포럼...재취업 교육·취미 프로그램 등 제공

강진군이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 빛나는 6070'을 주제로 '6070대학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포럼에는 은퇴자 및 은퇴예정자, 귀농·귀촌인 등 주로 중장년층의 군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진군 임준형 군민행복과장의 6070대학 운영계획 설명과 고선주 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본부장의 '행복한 백세시대를 위한 삶의 전환과 준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6070대학은 관내 노년층(만60~만72세)을 위한 재취업 교육, 건강, 취미·여가 등 프로그램 제공 목적으로 마련한 교육 과정이다.

막상 은퇴는 했지만 더 이상 어르신이 아닌 '젊은 노인'으로 여겨지는 일명 '킨세대'를 위한 시대의 흐름에 맞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6070대학은 상·하반기로 나눠 디지털 역량 강화(키오스크·스마트폰·컴퓨터·유튜브), 취미 여가(요리교실·실버요가), 전문가 양성 자격증(한식조리기능사·바리스타·스마트 팜·청자공예) 등 과정을 운영한다.



또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 푸소(Fu-so·농가를 활용한 숙박·체험시설) 체험, 목은지사업, 스마트팜 교육도 병행해 인구 유입 기반과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강진읍 임천지구 일원에 주거공간과 일자리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인구 유입 사업이다.

현재 93농가에 그치는 푸소 농가를 250농가까지, 목은지 사업체는 현 44개 업체에서 100여 업체까지, 청자공예도 현재 38명에서 100여 명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중년과 노년의 달라져가는 정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회 구성원으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청렴도 향상은 친절로부터" 장흥군, 연중 친절 서비스 눈길



미소 운동·역지사지 워크숍 등

장흥군이 '청렴도 향상의 시작은 친절로부터'라는 기치 아래 연중 다양한 친절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친절행정으로 청렴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군은 친절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미소 가득한 친절운동 ▲역지사지 역할극 워크숍을 통한 체험형 친절역량 교육 ▲친절공무원 선정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 친절운동은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고(See) 미소 짓고(Smile)로 긍정마인드(Say yes)를 가지고 간결(Simple)하고 유연한(Soft)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5S 운동을 말한다.

역지사지 워크숍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

교육은 역할극을 통한 체험형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평소 민원인과 응대과정에서 알아채지 못한 습관이나 말투, 행동을 돌이켜보며 친절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군 전체에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고 자긍심 고취를 통해 친절서비스 만족도를 높인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렴과 친절은 따로 갈 수 없으며 상호작용할 때 보다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군민의 마음을 읽는 친절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